

예술가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사례 연구 -미술 영재교육을 받은 예술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최유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요 약

본 연구는 미술 영재교육을 받은 예술가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인식하는데 있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가설에서 착수되었다.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는 한 예술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보 제공자는 예술적인 가정환경, 미술 교사의 권유, 그리고 자신의 흥미로 미술관련 진로를 결정하고 학원과 예술영재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예술가 집단 안에서 그들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교류하면서 예술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정보 제공자는 자신을 전문 예술가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예술적인 가정 환경과 가족의 지지가 있었으며, 기대지평 이론이 포괄하는 “예술적 재능의 발견,” “장기적인 예술교육과 기본기가 된 전공 스킬,” “예술적인 환경에 노출,” “의미 있는 미적 경험과 교육적 경험,” “예술적으로 실력이 있음”을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구축해온 것이다. 예술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예술가로 성장했다. 또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삶이 된 예술, 삶의 의미지평을 넓힌 예술”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술가라는 직업으로서 “예술을 삶과 일치”시키며, “채화된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창작에 있어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안에서도 “진정성 있는 긴 호흡의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었다.

주제어

예술적 재능(artistic talent), 예술적 환경에 노출(exposure to the artistic environment), 미적 교육적 경험(aesthetic educational experience), 삶의 의미지평(meaning horizon of life), 진정성(authenticity), 창작활동(creative activities)

서론

21세기는 문화와 산업이 융합되는 시대로, 문화예술의 외적 성장과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예술의 향유가 보편화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예술시장이나 수용자에 비해 “창작하는 예술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설령, 예술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주로 예술 시장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거나, 전통적으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환상적이며 고독한 천재의 이미지로 인해 예술가들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예술가의 현실이 가려지기도 하였다(김미사, 2009).

예술가의 현실에서 더 나아가 예술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은 경제적, 사회적 보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서적인 만족과 자기실현, 정체성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적으로도 예술가라는 특성상 비공식적이며 막연한 확신이라 할 수 있는 정체성이 예술가라는 직업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정필주, 최선헌, 2008).

이에 따라 전문 예술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정체성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예술가를 연구할 때, 예술가 스스로 “나는 예술가다”라고 생각하는 “예술적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어왔다. 콜럼비아 대학교 예술 및 문화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Arts and Culture)에서 1988년과 1997년에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정의,” “자기 및 동료 정의,” “교육 및 소속 정의” 차원에 따라 예술가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 및 동료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Jeffri & Grennblatt, 1989; 양종희, 2005 재인용). 즉, 예술가는 자기 스스로의 인식 및 예술인 사이에서의 인정이 예술가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예술가 연구에서 예술가의 정체성은 의미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예술가들을 살펴볼 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 과거의 예술가는 종교와 기술적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술가임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현대 예술가는 끊임없이 자신이 예술가임을 증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 교육기관은 존재하지만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처럼 예술가를 예술가로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격시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회사원처럼 기업의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술작업 활동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를 지닌다. 아울러 기술의 발달로 예술이 대중화되면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경계가 모호해진 부분도 있기에 예술가 스스로 자신이 예술가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흔히 예술가들이 일반인과의 차이점으로 인식되는 것이 예술가는 창의성과 자

울성을 지녔다는 것인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단편적인 수치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예술가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예술가 스스로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김미사,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가를 이해할 때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가설 하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진정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지식 제공자(informant)인 예술가는 시각예술 영재교육기관을 통해 미술대학에 진학하였고, 작품 전시와 판매 등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예술가로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예술 관련 직종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취 시각예술 영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인식하는데 있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연구자는 예술가의 작품 활동의 의미를 미술 창작활동과 사회적 요소 간 상호작용 양상의 관찰로부터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잠재적 예술가인 예술영재의 정체성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 미술과 예술가의 실천 사이의 관계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술가의 주체적인 역할을 동시대 예술가로 활동하는 예술가의 심층면담을 통해 실제 현장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따라서 예술가가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구축해 가는 과정을 탐색하고, 자신의 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예술교육을 받은 과정, 그리고 예술가가 되기 위한 노력 등을 파악한다. 이는 잠재적 예술가인 시각예술영재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로드 맵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예술가의 정체성

인간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직업적 자기 정체성을 견고히 하려 한다(류태호, 2000).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Erickson, 1959)의 자아 정체성 이론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에 감정적인 동일시와 직무종사자가 느끼는 직무주체성으로 직업정체성을 설명하였다. 에릭슨은 정체성의 개념을 객관적, 주관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심리적 정체성의 개인적 측면은 개인과 관련된 집단과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뜻한다. 또한 주관적 측면에서 개별적 정체성은 집단적 정체의식 속에서 자신을 타인과는 다른 고유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다(김미사, 2009).

예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예술가도 사회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인으로 간주되는데, 직업 사회학자인 엘리엇 프라이드슨(Eliot Freidson,

1986)은 예술 직업을 전문직으로 분류하였다. 예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교한 기술, 통찰력, 훈련이 요구되는 높은 문화 수준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이정은, 2001). 예술 직업의 성격은 어떠한 직업집단에 속하거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 절차를 밟는다가나 공식적인 시험을 보지 않아도 예술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전공에 비해 교육단계와 직업 활동으로의 이어짐이 상대적으로 더 모호하다. 따라서 예술가라는 정체성은 예술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형성이 가능하다(Adams & Kowalski, 1980).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은 개인의 열망과 태도 등의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도 중요하다. “직업 사회학에서는 문화적 고정관념, 직업과 관련된 가치체계, 사회적·가족적 경험, 친구와 교사 및 기타의 사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유홍준, 2000, p. 303). 예술가들도 이처럼 예술가 집단이나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예술가라는 직업과 자신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취하며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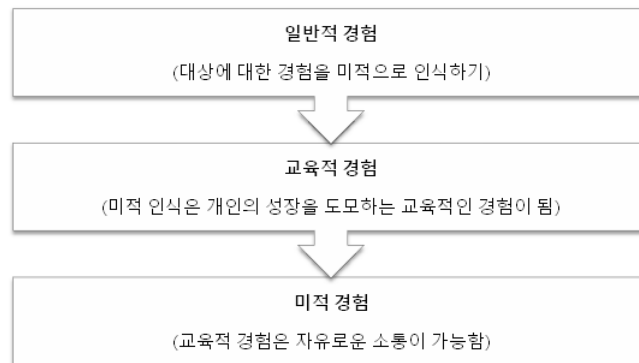
예술가의 미적 경험과 교육적 경험

존 듀이(Dewey, 2003)는 진정한 교육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경험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모든 경험이 교육적 경험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경험과 교육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그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경험이 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하거나 자극을 무관심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못하며, 교육적으로도 관련을 갖지 못한다. 이런 경험은 때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며,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혹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다른 경험과 어떤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즐거움으로만 끝나 버리는 경우도 있다. 즉,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행동과 성장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교육적 경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경험이 일반적으로 개인의 내적 자아에 자극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대상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총체적인 것이라면, 교육적 경험은 이런 경험들이 다른 경험과 결합하여 후속되는 경험에 의미 있게 작용하여 개인의 내·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험의 개념이 교육적 경험으로 개인의 심상에 의미있게 존재하여 후속되는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각인된 경험을 미적 경험이라 한다. 미적 경험과 관련하여 듀이(Dewey, 2003)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험이 진실로 경험인 한, 경험은 활력으로 고양되고 개인적인 감정과 감각 안에 갇혀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세계와의 활발하고 밀접한 교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최고의 경험은 자아와 대상, 사건의 세계 사이의 완전한 상호침투를

의미한다. 그것은 정체가 아닌 활동적이고 발전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주 초보적인 입장에서도 미적 경험의 전망을 갖고 있다.(p. 42)

듀이(Dewey, 2003)에 의하면 경험은 크게 일반적 경험과 교육적 경험, 미적 경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다음 <그림 1>과 같은 관련을 갖고 있다.



<그림 1> 듀이의 경험의 단계

예술가와 기대지평 이론

직업마다 그 직업에 필요한 자질, 능력 등이 존재하며, 이는 곧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직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본 바탕이 된다(김미사, 2009). 예술가도 스스로를 전문적 예술가라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그들만이 가진 재능, 예술적 표현 능력, 예술적 교육 경험, 예술관련 지식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자는 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수용미학의 “기대지평”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수용미학을 발생시킨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H. R. Jauss)는 “작가-작품” 중심적 작품 해석을 한 고전미학들과 달리 수용자의 능동적인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작가-작품-수용자”간의 소통관계에서 수용자 중심의 작품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수용미학은 문학 작품을 읽고 그것을 수용하는 독자의 측면에서 문학과 문학사에 관여하고 작용하는 기능을 살피고 그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박찬기, 1992b). 야우스는 작품의 수용에서 “기대지평”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기대”는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를 말한다. 야우스는 만하임의 “기대지평”이란 용어를 빌어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바람, 선입견, 이해 등 작품에 관계된 모든 전제를 총망라한다. “지평”은 철학 영역에서 인식, 이해, 사고의 범주를 지적하듯이 수용자가 지닌 기대의 범주를 포함한다(차봉희, 1985). 즉, 기대지평은 수용자가 지닌 창작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주 및 한계를 가리키며 수용자의 기대지평에는 선형, 경험, 전통,

습관, 상식, 교육 등으로 초래된 지식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기대지평은 작품 이해를 위한 수용자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김희경 2004; 박찬기, 1992a; 차봉희, 1985).

제이콥 겟젤스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Getzels & Csikszentmihalyi, 1973)는 예술 전공자들이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예술과 관련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예술가들이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때, 보통 사람들과 기대지평 수준의 차이가 나며, 동료 집단에서 기대지평 수준이 높은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머레이 아담스와 그레고리 코왈스키(Adams & Kowalski, 1980)는 예술 전공자들 중에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 예술 경험이나 예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에 비해 자신이 전문 예술가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기대지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예술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보다 더 충분한 조건을 갖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가들은 높은 기대지평의 수준을 바탕으로 단순한 수용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용미학에서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된다. 단순한 수용은 어떤 특정한 작품에 자극되어 수용을 자기 고유한 생산으로 변화시켜 창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생산적 수용은 학문 분야에서 일어나는 수용으로 창작 작품을 연구하고 평가한 여러 비평가들의 글을 수용하는 것으로 특징된다. 분석적 수용은 문학 비평가의 수용 양상으로, 앞에 언급한 다른 수용자처럼 비평가는 일단 작품을 수용하지만 나중에 다시 작품 분석을 하는, 분석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가들이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면서 수용을 하는 수용자를 넘어 창작자의 위치로 가는 “생산적 수용”을 명제로 한다.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함과 동시에 수용에 기반하여 창작 활동을 하는 역동적인 주체로 변화 가능한 것이다(김미사, 2009). 즉, 예술가들은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지니고, 예술 시장과 예술가 단체 안에서 사회화와 훈련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 전문성과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높은 기대지평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자기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예술가의 의미있는 타자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the Others)”란, 정체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타자는 가족, 또래집단 등과 같이 일차적이고 친근한 대면적 집단 및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 체계 등의 2차 집단도 포함한다(김은정, 2009).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정체성이란 자아의 의미생성과 관련된 것이다. 자아는 사회와 다른 자아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존재한다. 그들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행위자의 자아상과 자아표현에 대한 타인의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개인적 반응에 관심을 기울인다(Goffman,

1969; Barnett, 1976, 재인용).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이란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해석하고 정의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며 내면적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는 전제한다. 이를 조지 하버트 미드(Mead, 1934)는 “역할담당(role-taking)”이라고 하였다. 자아개념은 의미 있는 타자 혹은 일반화된 타자와의 역할담당 과정에서 형성되며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아개념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자아의 반사된 평가” 개념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준거집단, 의미 있는 타자 혹은 일반화된 타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할담당 과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자아의 반사된 평가는 준거집단과 중요한 타자, 일반화된 타자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객체, 대상화 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김미사, 2009).

예술가와 인정이론

상호작용론에서 사람들은 의미 있는 타자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 개인과 역할을 합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의미 있는 타자가 특정 역할에 근거하여 개인을 인정할수록 개인은 그 역할을 합치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역할을 개인에게 합치려는 경향이 있다(손장권 · 이성식 · 전신현, 1994; 김미사, 2009). 이처럼 개인이 수행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행위에 대한 결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의 인정”에 힘입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김미사, 2009).

예술가들의 정체성 형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인정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하워드 베커(Becker, 1982)는 “예술계가 예술가로 인정하는 사람이 예술가”라고 예술가를 정의하였다. 또한 베커의 예술가 분류 기준으로 상대적인 자기 정의와 함께 또한 자신을 예술가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세계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언급했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자신과 작품을 예술가와 예술작품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때에 자신을 예술가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Becker, 1982; 현택수, 2003, 재인용).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오늘날 진정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그 성격을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미술 영재교육을 받은 예술가가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과정과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잠재적 예술가인 시각예술영재들의 교육적 지표를 발견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 개인의 삶 속에서 정체성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요소들의 의미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가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예술가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정체성 형성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자는 예술가의 작품 활동의 의미를 미술 창작활동과 사회적 요소 간 상호작용 양상을 관찰로부터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예술가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에 대해 파악하려 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는 예술가의 정체성 표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존재의 자기 의미 부여인 정체성 변화의 과정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이 직면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현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비구조화된 방식의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별적이고 상황적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별히 아메데오 기오르기(Giorgi, 2003)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기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대상자의 주어진 언어인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과 분석을 강조한다(이경재, 2017). 따라서 기오르기의 연구 방법은 본 연구 주제인 예술가에게 나타난 정체성의 형성 과정의 특성을 모호하지 않은 학문적 용어로 변환하여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출된 구조와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일관된 기술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가의 정체성의 형성과 그 특징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은 120분 3회에 걸쳐 연구자와 개인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화 및 이메일로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의 과정은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는 것과 함께 핵심적인 면담 내용을 메모하였다. 연구 결과의 분석은 심층 면담 시 작성한 메모 자료와 전사한 녹음 자료를 기술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과 분석은 문헌 자료, 문서 및 시각 자료, 면담 자료 등의 수집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상호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심층 면담 이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나 이메일 등의 부차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보완하면

서 분석을 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NVIVO 12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삼각검증법과 연구자 반성, 심층적 기술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방법은 다양한 문서 및 시각자료의 확보, 심층 면담 진행과 이를 통한 전사 자료의 생성, 메모와 필기 노트 등의 자료의 통합이라는 삼각검증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식 제공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예술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사람으로 특징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정보 또는 지식 제공자인 예술가는 미술영재교육기관(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수학)을 통해 미술대학에 진학하였고, 작품 전시와 판매 등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예술가로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예술 관련 직종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활동하는 예술분야는 순수예술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술가는 예술 생산, 소비, 교육 체제의 변화와 예술 시장의 현상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닌 지식 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예술교육 수학기간 및 예술 활동을 15년~20년 이상 수행한 예술가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예술 교육과 예술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예술가 직업정체성 인식과 지식 제공자 스스로 본인을 예술가로서 차별화하고 분리하는 지점을 생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실천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문제를 탐색하는 데에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는 미술창작 활동과 예술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며 두 활동을 함께 수행해오고 있는 예술가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정보 제공자의 현황과 특성

정보 제공자	나이/성별	창작활동		예술교육 수학		인터뷰 횟수
		분야	활동기간	전공	수학기간	
A	40/여	회화	18년	서양화, 동양화	15년 (미술 영재교육기관 수학 6년)	3회

지식 또는 정보 제공자는 인터뷰 진행 당시 직접적인 답변 이외에 자신의 예술관, 미술창작활동과 기타 예술관련 활동 병행을 둘러싼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진

술하였다. 예술가들과의 심층 면접의 시작은 예술가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정보제공자들이 어떠한 계기와 과정을 통해 예술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다음으로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예술 생태계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구축해가는 예술관과 작품세계의 전반적인 과정과 갈등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술가 직업정체성 형성과정과 직업정체성 형성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술가의 정체성 형성 과정 및 특징

예술가의 높은 수준의 기대지평

기대지평 개념은 수용자 중심의 수용미학에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직접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에게 적용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수용미학에서의 수용자는 단순히 독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김미사, 2009). 예술가들도 다른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분석하는 수용자 중의 한 사람이자, 동시에 작품의 창작자이자 자기 작품을 바라보는 수용자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은 처음 예술의 길에 들어서게 된 동기 중 상당부분이 예술분야에서 또래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정보제공자 A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학교에서도 그림을 잘 그렸지만, 미술을 전공하려는 친구들이 모인 학원에서 제 실력을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등학교에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제 실력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친구들이 모인 학원에서 제 실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제가 그 무리에서도 잘 그리더라구요. 그리고 선생님의 칭찬도 제일 많이 받았구요. 그래서 그 때, 정확히 안 것 같아요. 내가 이 쪽에 소질이 있다는 걸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술적 재능과 감각을 지녔음을 알게 된 정보 제공자는 예술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예술을 접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또한 예술가 집단에 들어오면서 전문가, 예술가 동료 등으로부터 예술가 집단의 전통과 규범, 가치 등을 습득하면서 예술가로 사회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가는 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대지평의 수준을 높여나갔다.

재능의 발견. 예술가는 일반사람과 달리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예술가의 역할이 창조의 행위를 하기에 예술가로서의 독창성, 창의성, 자율성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예술적 재능”을 갖추어야 한다. “재능”과 “재능 발달”은 능동적인 개념이고, 개인은 자신이 가진 특별한 소질을 계발하도록 양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Feldhusen, 1994).

정보 제공자 A도 예술가는 “타고난 기질”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스스로를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인터뷰에서 예술가로서의 강한 자기 인식이 드러났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기에 쑥스럽지만…… 미적인 감각이랄까요, 예술에 대한 예민한 감각? 이런 기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타고난 감각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제가 습득력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OO이는 하나를 이야기하면 세 개 이상을 해내는 아이”라는 말을 줄곧 들었죠. 그리고 같이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시샘도 많이 받았어요. 미술선생님이 절 편애하셨거든요.

A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예술적 재능을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정보 제공자는 “감각,” “습득력,” “기질,” “예민성” 등으로 표현하였다. 미술과 관련한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예민한 미적 감각을 가지며, 습득력이 빠른 것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는 기억을 더듬어보면, 색채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어떻게 조합하고 섞느냐에 따라 작품이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색을 연결 짓는 것도 그렇구요. 색상은 나의 독창적인 표현의 도구, 의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또한 “표현력,” “독창성,” “본능적,” “직관적”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예술가의 재능은 타고난 기질, 본능, 직관 등이 갖춰지고, 이를 어떻게 표현해내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예술가의 미적, 교육적 경험. 예술가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기간동안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적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의 전시회에 간다거나 관

런 서적을 읽고, 국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 견학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예술관련 지식도 습득한다. 학교 수업시간에도 예술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예술가 A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예술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위해 스스로 다양한 자극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미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거나 마찬가지로요. 예중 입시를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밤새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그림 그리는 동안 행복했어요.. 그렇게 예중, 예고를 거쳐 미대에 진학한거죠. 그러다보니 테크닉적인 부분은 정말 탁월했죠. 제가 생각해도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물론 학교 성적도 우수했구요..... 오랜 시간동안 미술을 공부하다보니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중학교 때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면, 혼자서 인사동에서 하는 전시회는 열심히 돌아다녔으니까요. 하다못해 학교 레슨을 빠지고서라도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관련 전공 서적을 읽는 것도 했었구요. 그런 경험들이 제가 예술가로서 활동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도 예술 트렌드를 보기 위해 미술 잡지도 구독하고, 아트페어에 참가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노출시키고 공부하죠.

장기적인 시간 투자와 다양한 방법의 노력으로 미적 경험과 예술 교육적 경험들은 예술가로 하여금 일반인보다 심미적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가는 작품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예술가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예술가의 의미 있는 타자. 예술가의 의미 있는 타자를 살펴보면 예술적 능력을 평가해줄 수 있는 비평가, 전문가, 선생님, 동료, 일반 관객, 가족이나 친구 등이 의미 있는 타자가 될 것이다. 물론 의미 있는 타자의 중요도는 서로 다를 것이다. 하지만 예술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예술가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 평가를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예술가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보 제공자 A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가 예술가로서 활동하는데 가장 동력이 된 사람들이 있죠. 음.....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시기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술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지금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 은사님은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셨던 분이죠.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학교에 원서를 넣을 때도 넌 할 수 있다, 예술가로서 대성할 거

라고 격려와 응원도 해주셨구요. 그 분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분이 제가 예술가로서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준 분인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은사님의 말처럼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희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구요.

이처럼 예술가는 타인의 평가를 받으면서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갔다.

예술적인 가정 환경과 가족의 지지.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교육을 받고, 예술가의 꿈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정환경의 영향은 생각보다 지대하다. 사실,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예술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재능을 계발하기 위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도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술가 사례에서도 발견되듯이 유년시절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도 가정적인 환경의 영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양한 해외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문화자본과 예술전공생들의 상관관계를 밝힌 바 있다(김미사, 2009). 예술가 A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가 예술 쪽 전공을 하게 된 게 아무래도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 못 하는 듯해요.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를 전공하셨다가 미술로 전향하셨고, 이모들도 피아노, 플루트를 전공했거든요. 외가 쪽 분들이 예술전공자가 많아요. 그런 끼를 제가 은연중에 물려받은 것 같아요. 특히나 어머니가 미술에 관심이 있으셨기에 저를 미술을 전공해보도록 유도하셨고, 다행히 제가 그 쪽에 재능이 있었던거죠. 그래서 이 쪽 재능을 빨리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건 행운이죠.

이처럼 가정환경,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예술과 연관 짓게 되고, 예술가로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예술가 동료에 의한 자극. 유년시절, 또래에 의한 영향은 매우 크다. 또래로 인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이 속한 집단 안에서 동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술가 A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저한테 너 정말 잘 그린다고 이야기해주면, 자기 효능감을 느꼈죠. 아 내가 진짜 이걸 내 업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구요.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예술을 전공하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다보니 같은 전공이 아니어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전공 친구들에게 영감도 얻었구요. 서로 시너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전 학창시절의 그 경험이 제 인생에 미친 영향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그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환경이었으니까요. 근데 성인이 되어보니 그 때의 그 경험의 중요성을 알겠더라구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때 그 친구들이 예술가 동료가 되었고, 그들의 격려와 조언이 트리거가 되기도 하죠.

또한 예술가 A는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인 특정 영재 집단의 공동체 안에서 예술적인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고, 그들 사이에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예술가의 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갔다. 또한 같은 전공을 하는 동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다.

타인의 인정을 통한 정체성 재형성하기. 예술가는 꾸준히 자신만이 아닌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술가적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대회나 공모전 입상, 레지던스 활동이나 갤러리 전속작가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인정이나 비평가, 동료들의 평가, 관람객,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반면, 일부 예술가들은 동료, 주변 사람들, 공식적 기관, 예술가들로부터의 인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본인만의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스로나 타인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김미사, 2009). 정보 제공자 A도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져왔다고 하였다.

저는 예술가로서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각종 공모전에 참여했었죠. 예술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나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도 하고, 그러한 공신력이 있는 곳의 인정으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외 레지던시 이런 것도 참여하고, 보통 해외 전시 공모전에 매년 참가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알게 되고,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러면서 성장해왔어요.

이렇듯 예술가는 끊임없이 공모전이나 대회, 아트페어, 레지던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예술가적 자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구축해간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보며 예술가로서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다.

삶이 된 예술-삶의 의미지평을 넓힌 예술

보통 예술가라는 직업은 일상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진다. 예술가는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결과가 아니며, 습관적인 직업패턴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예술을 직업이라는 범주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이 일상적 습관과 무관하지 않음을 밝혀야한다. 데이비드 베일즈와 테드 올랜드(Bayles & Orland, 1993)는 “창작의 과정이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문제”(p. 17)라고 하였다. 이러한 예술가의 일상적 문제들은 예술가의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예술 활동은 현대사회에 팽배한 가난하고 고달픈 예술가의 인생이라는 낭만적 보편성에 반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습관이라는 것이 예술작품의 창작활동에 있어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고 생산하는 데 있어 균형감각을 제공하고, 예술가가 영위하는 삶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Bayles & Orland, 1993). 정보 제공자 A도 작업 활동을 습관과도 같다고 하였다.

작업 활동을 하면서 저는 작업실에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일정한 시간에 가요. 가서 붓을 들지 않고, 생각만 하고 오더라도 꼭 가려고 하죠. 예술가도 직업이 예요. 일반 회사원들이 출퇴근 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연습을 쉬면 내 몸이 안다고들 하잖아요. 미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다보면 작업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창작활동이 유레카! 하는 것처럼 여기고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폄하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창작활동 하는 것을 습관처럼 자신의 일상으로 여기고 일하죠. 저는 생활 자체가 작업과 연관을 지어요.. 온 정신이 거기에만 쏠려있죠.

예술이라는 노동에 있어 습관의 의미는 듀이(Dewey, 1929)의 직업론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습관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순전히 개인적 흥미나 취향으로 빚어진 것이지만 본격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이전에 형성된 습관이 직업적 삶에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관찰과 공작을 좋아하는 아이가 예술가가 되어 사물을 관찰하고 작품창작을 하는데 있어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하나는 본격적인 직업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역 내에서 관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직업적 습관들을 의도적으로 수용하고 습득하는 것으로 예컨대, 예술가들이 행하는 끊임없는 자기 홍보, 다른 예술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작업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과 같은 습관들이 해당된다. 삶의 과정 속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습관의 자연스러운 출현과 적용은 특정 습관이 개인의 생활 방식과 주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체화된 행위양식인 습관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이라는 두 차원의 인간존재를

직업적 활동을 통해 동시에 발현시키고 통합하여 구체화된 삶의 양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직업적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는 삶의 양식은 삶의 의미지평을 넓히고 개별적 존재의 가치를 심화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성립되는 것이다(이강진, 2015).

사고의 틀 바꾸기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 2010)은 직업 활동에서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관의 도약은 틀 바꾸기의 단계를 통해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틀 바꾸기의 전제 조건은 손에 익힌 기술, 직업적 습관으로 익숙해진 도구로써 자신의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를 능숙하게 다룬다는 전제 하에 틀 바꾸기 단계가 가능한 것이다(이강진, 2015). 이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자 A는 이렇게 말한다.

작업 활동에 있어 기본기가 되는 전공 스킬이 있죠.. 이걸 반드시 예술가라면 거쳐야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1개 밖에 없다면, 결국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미술 관련 모든 전공을 배우고, 나와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학부 전공 고르듯이요. 그렇게 전공을 선택하면, 심화 전공 수업을 듣게 되고, 그렇게 전공에 대한 지식과 스킬 등을 배우죠. 그래서 전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틀 바꾸기 단계 이후에 “서로 다른 두 영역을 나란히 놓는 일”을 통해 직관적 도약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ennet, 2010; 이강진, 2015, 재인용). 서로 다른 두 영역을 나란히 놓는다는 것은 비가시적인 영역과 가시적인 영역을 자신의 도구를 이용해 가까운 위치로 이동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멀리 있는 이에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생산방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창조의 과정이 된다(이강진, 2015).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기가 된 정공스킬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직관적 도약을 도모하는 예술 창작 과정은 녹록치 않다. 본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건문이 있다면 예술가의 작품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틀을 깨고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예술가의 창작은 무한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긴 호흡으로서의 창작 활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적은 시간 동안 일하는 걸 선호하고 오랫동안 비싼 교육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에서 가장 적당한 직장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낮은 임금, 길고 불확실한 근무시간, 부상의 위험

성, 힘든 준비와 교육 과정, 내재적인 재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한다. 예술직업은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Heilbrun & Gray, 1995) 그동안 진정한 예술가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예술 활동을 하지 않으며 물질적인 것에는 초연해야한다는 예술가의 직업 이데올로기는 예술가의 상징이었다. 예술가 A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언젠가 제가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데!”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예술창작 활동이라는 게 바로 금전적으로 환산되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가끔 물밑 듯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와요. 그래도 전 모르는 척 하고 넘기죠. 왜냐하면 저는 이 창작 활동이 좋으니까요. 그냥 좋아요. 이거에 몰입해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오래도록 작업에 공을 들이죠. 그렇게 해서 자식 하나씩을 낳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저에겐 너무도 소중한데요. 이런 진정성이랄까요. 이러한 저의 진심이 없는 창작은 껌테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그냥 버티는 거죠. 버텨야 해요.

인터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예술가 A는 직업을 통한 경제적 보상, 사회적 보상보다 심리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물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자신의 혼신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노동을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난다고 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술 영재교육을 받은 성취 영재인 예술가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인식하는데 있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통해 예술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예술가의 탄생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예술가는 장기간의 예술교육과 미적 경험, 교육적 경험을 쌓고, 예술가 단체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예술가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예술가는 예술적인 가정환경, 미술 선생님의 권유, 그리고 자신의 흥미로 미술 관련 진로를 결정하고 미술학원과 예술영재교육기관인 예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예술가 집단 안에서 그들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교류하면서 예술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정보 제공자는 자신을 전문 예술가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예술적인 가정환경과 가족의 지지”가 있었으며, 기대지평 이론이 포괄하는 “예술적 재능의 발견,” “장기적인 예술교육과 기본기가 된 전공 스킬,” “예술적 환경에의 노출,” “의미 있는 미적 경험과 교육적 경험,” “예술적으로 실력이 있음”을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구축해온 것이다. 예술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예술가로 성장해왔던 것이다.

또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형성과정을 통해 발견된 정체성 형성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삶이 된 예술, 삶의 의미지평을 넓힌 예술”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술가라는 직업으로서 “예술을 삶과 일치”시키며, “체화된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창작에 있어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안에서도 “진정성 있는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성취 시각 예술영재인 한 예술가의 단일 사례를 바탕으로 잠재적 예술가인 시각예술영재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술교육을 받는 시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성취의 경험과 높은 수준의 기대지평, 그리고 전공스킬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각예술영재 주변에 의미 있는 타자가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의미 있는 타자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고, 예술이 삶이 되면서 체화된 활동으로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정체성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미사 (2009). 예술가 지망생들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85-129.
- 김희경 (2004).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수용자의 기대지평에 따른 텍스트 해석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6), 166-195.
- 류태호 (2000). 체육교사 임용준비생의 생활과 정체성: 노량진 학원생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7(1), 111-123.
- 박찬기 (1992a). 동서독 괴테수용 비교와 문학관의 변화과정 연구. *비교문학*, 17, 9-38.

- 박찬기 (1992b). *수용미학*. 서울: 고려원.
- 손장권, 이성식, 전신현 (1994). *미드의 사회심리학*. 서울: 일신사.
- 양종희 (2005). *문화예술사회학*. 서울: 그린.
- 유홍준 (2000). *직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 이강진 (2015). ‘직업 예술인’의 정체성 - 복수의 직업 정체성을 지닌 예술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 *한국영상학회*, 13(3), 181-195.
- 이경재 (2017). 미술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이정은 (2001).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직업사회학적 분석: 서울. 경기 지역 오케스트라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13, 301-355.
- 이현재 (2005). 여성주의적 정체성과 인정이론: 헤겔 변증법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시대와 철학*, 16(1), 63-84.
- 정필주, 최섯별 (2008). 예술가의 정체성 갈등과 대응전략. *사회과학연구논총*, 19, 195-227.
- 차봉희 (1985). *수용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현택수 (2003). *예술과 문화의 사회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Adams, M. C., & Kowalski, G. S. (1980). Professional self-identification among art students. *Studies in Art Education*, 21(3), 31-39.
- Barnett, J. H. (1976). The sociology of art. In C. A. Milton, J. H. Barnett, & G. Mason (Eds.), *The Sociology of art and literature* (pp. 47-48). Praeger Publishers.
- Bayles, D., & Orland, T. (1993). *Art & fear: Observations on the perils (and rewards) of art making*. Minneapolis: Image Continuum Press.
- Becker, H. (1982). *Art worlds*. Los Angeles,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wey, J. (1929). *Experience and nature* (2nd ed.).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Dewey, J. (2003). *Art as experience*. (이재언 역).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 세상. (원저출판, 1934)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 Feldhusen, J. F. (1994). Talent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TIDE).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0(1), 10-15.
- Getzels, J. W., & Csikszentmihalyi, M. (1973). *The personality of young artists: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explor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64(1), 91-104.
- Heiburn, J., & Gray, C. M. (1995).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rtist's Identity -Focused on the Cases of Artists with Art Gifted Education-

Hyun-Min Lee

Ed. D.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Yoo-Mi Choi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Identit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selecting a career and recognizing a job for a gifted and accomplished gifted artist who received gifted art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an artist's identity formation through the story of an artist. Informant in the study, who regarded herself as professional artist and had firm identity as artist, decided on art-related career paths based on her artistic family environments, art teachers' recommendations, and her own interests and went on to art college while attending academy and secondary school, an institution of gifted art education. Afterwards, she became specialized as artist by internalizing and exchanging her values and norms within the artist group. The background of artist's identity was an artistic family environment, support from artist's family, "discovery of artistic talent," "a long-term arts education and basic skills," "exposure to artistic environment," "meaningful aesthetic experiences and educational experiences," and "artistic competency," which has increased through recognition from herself and "the meaningful other." Artists grow into their roles by interacting with these various social factors. In addition, she mentioned, "art that became life, art that expanded the horizon of meaning of life" as an effort to establish an artist's identity. As an artist, she "matches art with life" and engages in "embodied creative activities." In addition, she seeks to break the frame of thinking in creation and builds her own identity through creative activities in pursuit of a long-held hope despite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논문접수 2020. 10. 06	심사수정 2020. 10. 28	게재확정 2020. 11. 03
-------------------	-------------------	-------------------